

CASA

decorating
shopping
design
lifestyle

LIVING

차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
Neutral Color Effect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바 스톨
리빙 맵 업데이트
가로수길 리빙&라이프스타일 습 24

엔틱 테이블웨어와 꽃의 만남
Blooming table
어여쁜 당신, 그린 피그말리온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몸속 독소 빼내기



AUDIO ROOM DESIGN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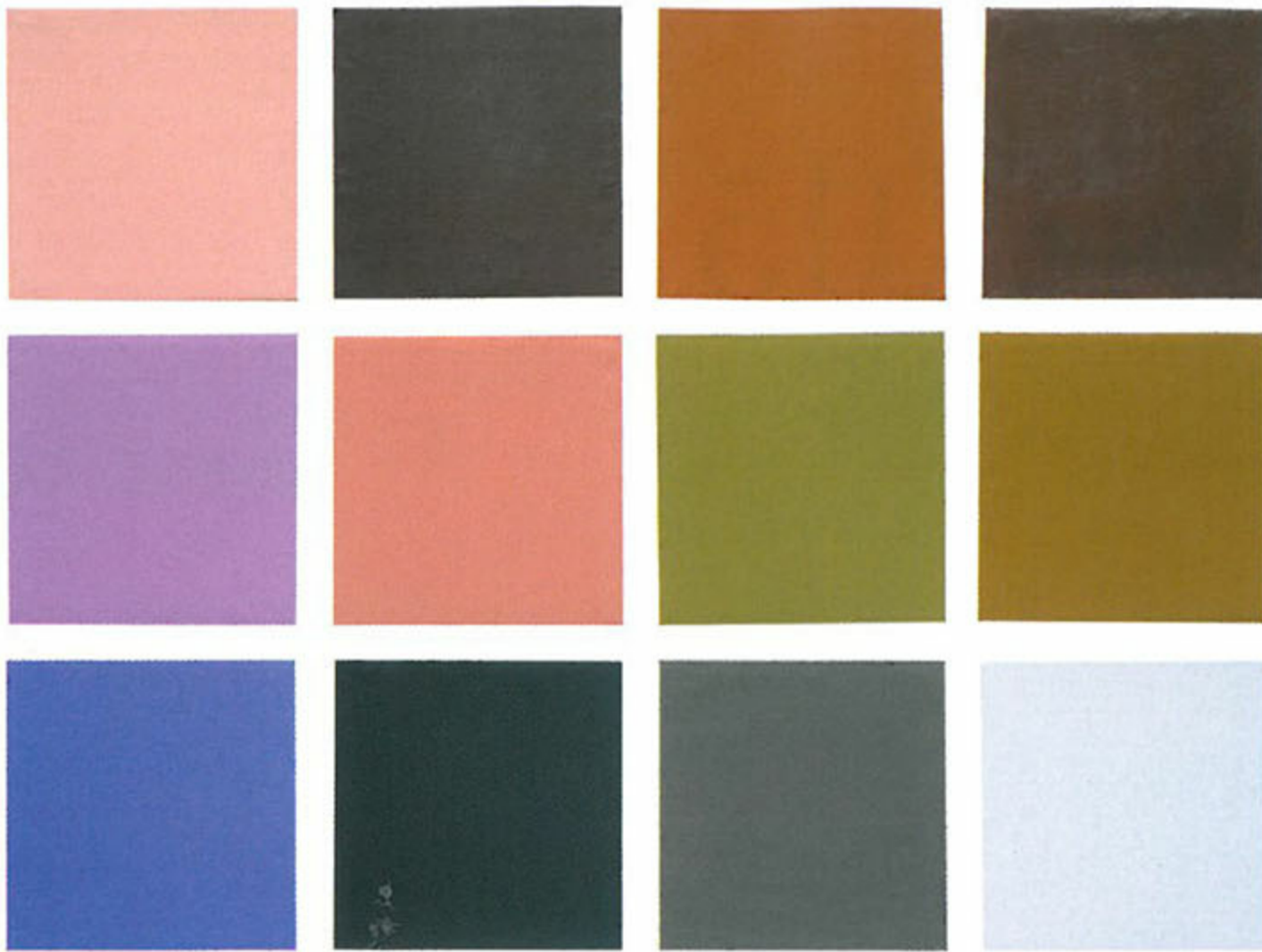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별 홈 사운드 시스템 추천

정가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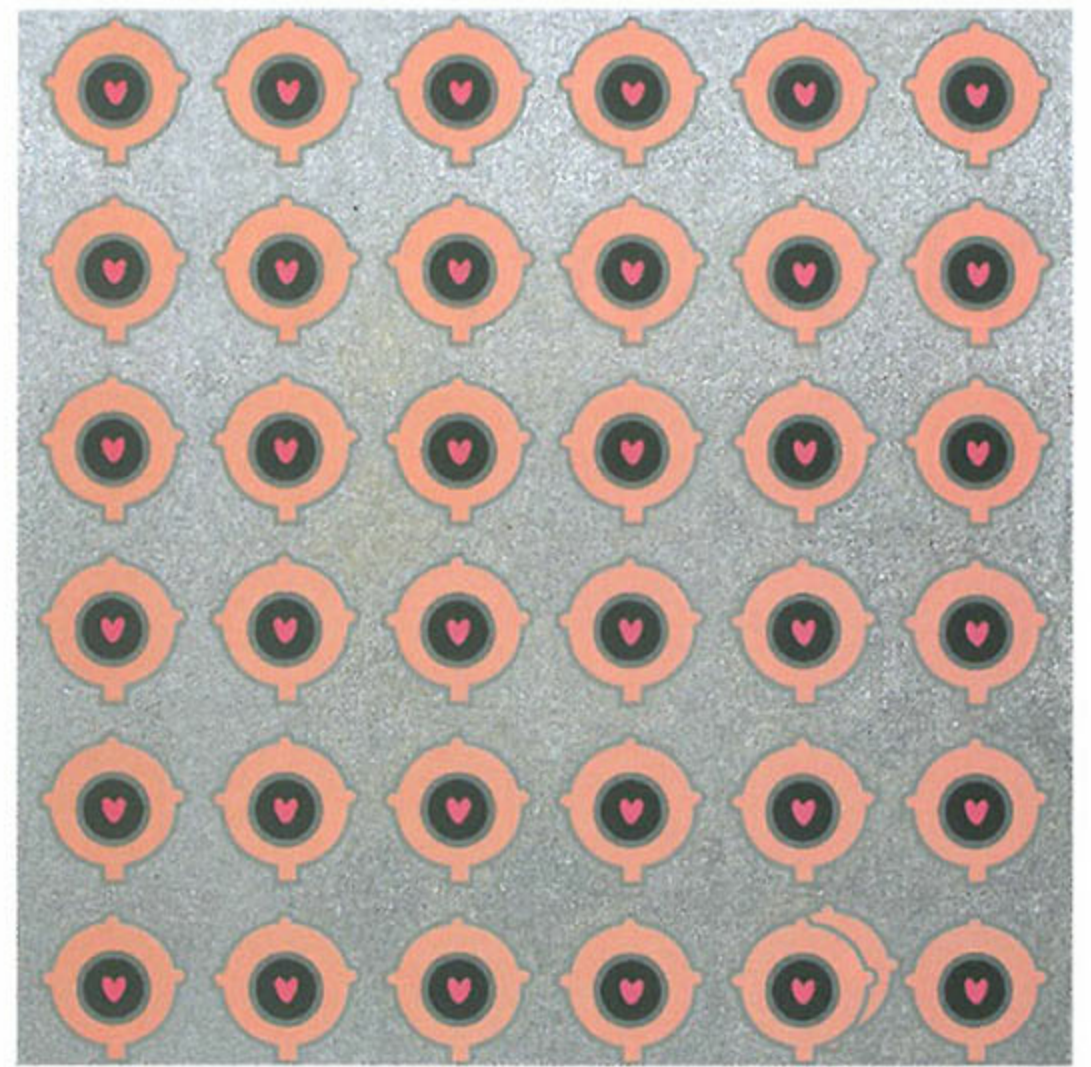
ISSN 1228-8993

01





12 Colors VII, 2013



Many Scream, 2011

박미나 동시대적 컨텍스트가 담긴 가장 아름다운 동화

박미나는 작품 속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무척 재미있는 방법을 택한 화가다. 그의 화면은 일견 무척 아름답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짝차있다. 그 속에 담긴 것들을 들여다보노라면, 우선 작가의 노고를 마주하게 된다.

곱고 아름다운 화면 속에는 어떤 종류의 분석과 수집을 통한 동시대 사회의 맥락이 담겨 있다. 이 중에는 많은 이에게 알려진 당뱃폰트를 여러 개 중첩해 표현한 일련의 연작도 있고, 시중에 존재하는 아크릴 물감을 브랜드별로 모두 모아 만든 오렌지색 페인팅 작업, 파란색 물감을 모두 수집해 그린 소파 그림 등이 있다. 이 밖에 상하이에서 체류했던 호텔 주변의 거리에서 접한 색들을 수집해 제작한 벽화 작품, 서울에서 판매하는 볼펜을 구입해 줄 곳을 반복한 작품도 있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 방식은 재미를 주는 동시에 현 시대를 담아낸다. 이는 소비적인 현재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가장 영리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Vcdididid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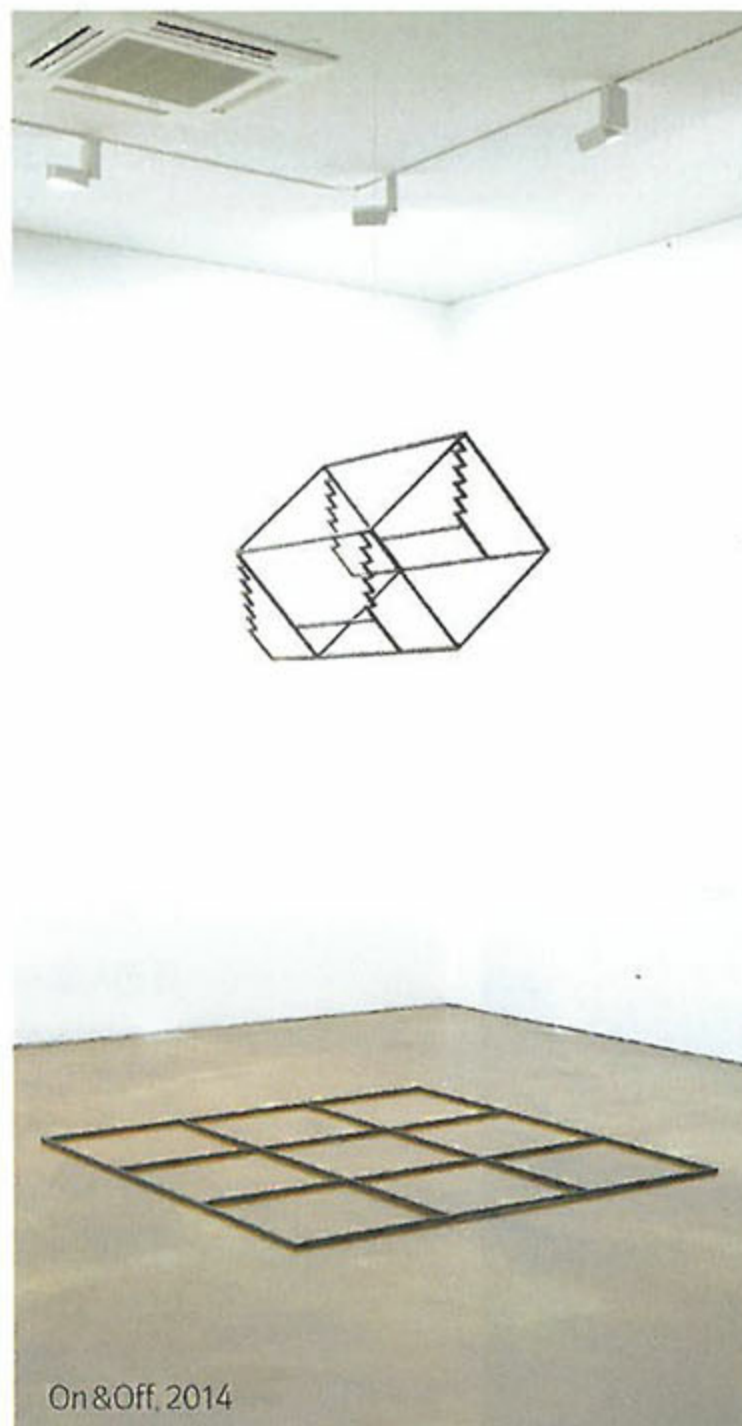
홍승혜

디지털 시대의 최소 단위, 픽셀을 통해 보여주는 무한한 관계성

홍승혜는 유학 중이던 1997년 전통적인 회화 매체를 뒤로하고 포토샵을 택했다. 포토샵에서 픽셀과 그리드로 구현 가능한 기하학적 형태들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었다. 그는 올해 7월,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회상'이라는 제목의 전시에서는 그가 늘 중요하게 다루었던 픽셀을 기반으로 한 작업들을 펼쳤다. 픽셀은 디지털 라이즈된 시각 예술 세계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홍승혜가 픽셀로 보여주는 리드미컬한 조형미는 마치 어린 시절 사각기둥이나 원뿔을 그리며 처음으로 데생을 하던 날의 기시감을 준다. 물론 그 기시감은 매우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인 것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더불어 픽셀의 다양한 확장과 반복이 보여주는 유기적인 조화와 안정감은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성을 대변한다. 그는 작품 속 공간의 어울림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관계 맺음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동시대 시각 문화의 원자(原子), 픽셀 안에 담긴 홍승혜의 무궁한 담론의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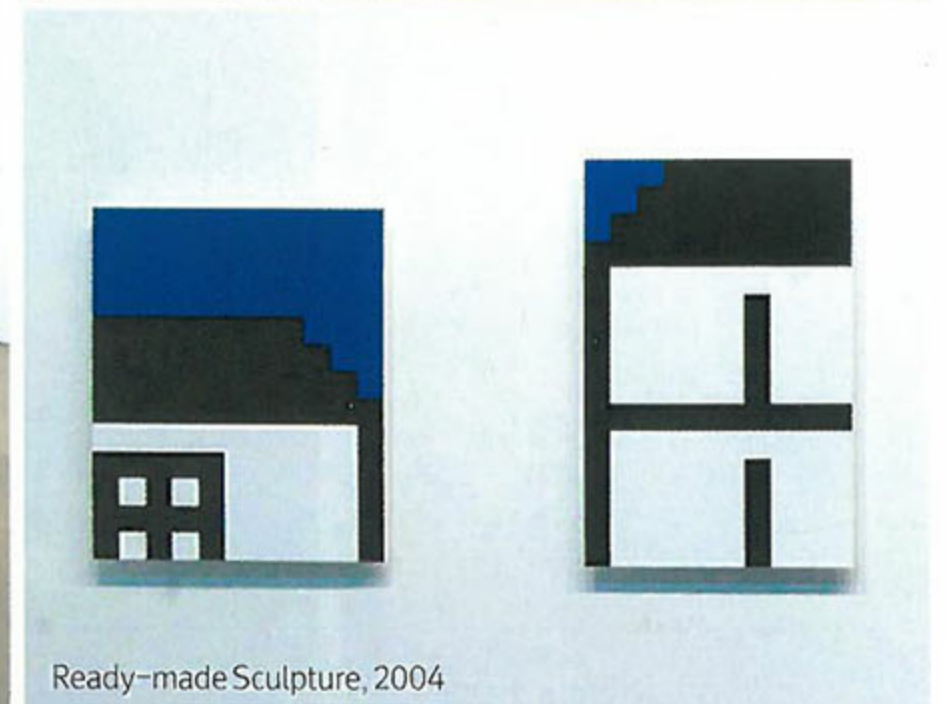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On&Off, 2014



Organic Geometry, 2006



Ready-made Sculpture, 2004